

# 주말 빛고을시민문화관서 공연예술의 진수 즐겨보자



초가을,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페스티벌이 마련된다. 광주 지역 공연 문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준비한 페스티벌로 다양한 장르의 무대들이 시민들을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지역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 '하·하·하(시원하고 유쾌하게 예술하자) 페스티벌'이 6~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페스티벌은 경남 진주 극단 현장의 난버벌 코믹 놀이극 '정크, 클라운'으로 시작한다.

6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이 공연은 마음과 고골로 잔 놀이극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다.

같은날 오후 8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무대는 북구청소년수련관 상주단체 아트컴퍼니원이 꾸민다. 한량 박첨지가 광주 역사 속으로 유랑을 떠나는 '포복절도'를 선보인다. 무등산 의병, 광주학생독립운동, 80년 5월을 박첨지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학적이고 은유적으로 풀어낸다.

다음날인 7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인 광주 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그린발레단의 합동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스트링&발레 판타지아'로 장르를 넘어 화려한 무대를 꾸민다.

같은날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

무대에는 대전 대표 극단 아신아트컴퍼니가 오른다. 이날 이들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과 '봄봄'을 소재로 유쾌한 마당극 형식의 뮤지컬 '청사초롱'을 선보인다. 1920년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분장과 의상, 신나는 마당극 형식의 노래와 안무가 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문화센터 상주단체 극단 논다와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전통문화연구회 일수는 이날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무대에서 합동 공연을 선보인다. 난버벌 퍼포

## '하·하·하 페스티벌' 6~7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일대서 마당극부터 융복합 무대까지

먼스 동화극 '할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인기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내용으로 가슴 따뜻한 가족애를 담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특별무대에서 남구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사)선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상주단체 광주현대 무용단이 합동 공연 '보헤미안 랩소디&춤...볼레로'를 선사한다. 오케스트라 연주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미국 작곡가 조

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비교 감상하고 킨의 명곡 메들리를 즐길 수 있다.

페스티벌 기간 동안 상주단체 공연 외에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소공연과 이동공연, 연극·공예체험도 마련된다.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리는 6일 오후 5시 50분 개막 공연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구성된 호남씨어터의 팝뮤지컬 갈라 콘서트 '올 슈업(All Shock Up)'이 관객들을 만나 흥을 돋운다.

이와 함께 빛고을시민문화관 2층 로비 등에서는 목관4중주 공연과 가족을 위한 연극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목공예·쪽염색·수수건·방향제 만들기 등 공예체험도 즐길 수 있다. 하루 2개 이상 공연 관람 도장을 받은 시민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증정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광산문화예술회관·서구문화센터·남구문화예술회관·북구 청소년수련관·빛고을문화회관 등 5곳에 상주하고 있는 7개 예술단체가 공연을 갖는다. 이들은 단독 공연은 물론 합동 공연, 경남 진주·대전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초청해 교류초청공연도 함께 전개된다.

모든 공연은 전석 초대며 좌석예약제로 진행된다. 비가 올 경우, 모든 공연과 부대행사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과 로비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7442. 김혜진기자 hj@srb.co.kr



# 나도 예술가, 아마추어가 꾸미는 무대

## 생활문화예술단체·동아리 합동 공연 '소소하게 우리끼리 페스티벌'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서

우리 지역 생활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무대 주인공이 된다.

'소소하게 우리끼리 페스티벌(이하 소·우리 페스티벌)'이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158개 활동단체와 동아리들이 펼쳐 온 문화예술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축제는 공연과 부스, 네트워크 등 3가지 세부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공연은 풍물, 색소폰, 뮤지컬 등으로 구성된 총 21팀이 참가한다. 7일 풍물패 한울, 광주시 낭송 아카데미, 실버세대로 구성된 무등합창단, 광주예향오카리나양상블 등 10개 공연이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8일에는 지역 유일 실버오



우리 지역 생활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꾸미는 무대가 7~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서 펼쳐진다.

케스트라아시아실버밴드오케스트라, 하카와히네 광주홀라걸스, 뮤지컬팀 문화공동체 탄생, 통기타 연주동아리 피크와 핑거링 등 11개 팀이 공연을 선사한다. 공연은 오후 4~6시 진행되며 비가 오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부스는 전시·체험·판매·홍보를 진행하는 총 10개 팀이 참가한다. 수공예 동아리 아뜰리에,

도자기 작품을 볼 수 있는 다슬, 사진 작품을 볼 수 있는 눈NOON, 다도체험을 할 수 있는 예레현, 한지집 등 전시작품 관람이 가능한 서석전 통한시보존회 등이다. 다양한 부스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작품 구매도 가능하다. 부스는 오후 12시~6시까지 운영된다. 비가 오면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670-7447/7912. 김혜진기자 hj@srb.co.kr

# “영화 간판, 대중과 소통하는 매개조”

## 마지막 영화간판장이 박태규씨

영화간판학교로 시민과 공동작업 사라져가는 간판 보관 작업 2인전 등 개인 작업도 활발



박태규씨는 '마지막 영화간판장이'로 불린다. 1991년 광주극장 미술실에 몸을 담은 그는 영화 '동방불패'의 간판으로 시작해 지난 2004년 다큐 영화 '소환'으로 퇴직했다. 이후에도 광주극장 미술실로 출근해 1년에 1~2개의 영화 간판을 만들고 있다.

지난달 28일 찾아간 광주극장 미술실에서 그는 영화 간판의 천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이 작업은 사라져가는 영화 간판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간판들은 '마지막 영화간판장이'로 불리는 박태규씨의 작품이다. 박씨는 지금까지 그려온 간판 중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간판장의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영화 간판은 비용적 문제 등 때문에 그렸던 것을 하얗게 칠해 지운 다음 그 위에 개봉 영화 포스터를 그리는 것이 보통이다”며 “그래서 여태 그린 것 중 남아있는 간판이 거의 없다. 아쉽지만 그것이 간판의 숙명이라니 한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간판을 모은다면 광주극장의 100년 등을 더욱 의미 있게 축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번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태규씨는 지난 1991년, 호남대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광주극장의 미술실에 발을 디뎠다. 대학 시절, 벽화나 걸개그림을 통해 민주화 운동에 동참했던 그는 창작 표현 방법이 걸개그림과 비슷한 영화 간판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 단순히 영화를 홍보하기 위한 매체라기보다 표현 기법이 있어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군에 다녀와 무작정 광주극장을 찾아 간판을 배웠다. 그는 영화 '동방불패'로 시작해 다큐멘터리 영화 '소환'을 마지막으로 지난 2004년 광주극장 미술실에서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광주극장을 찾아 1년에 1~2편의 간판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는 1년에 1차례씩 광주극장에서 영화간판학교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도 4일부터 시작해 주말 동안 수강생들을 지도한다. 박씨는 “광주극장은 거의 전국서는 유일하게 영화 간판이 걸려있는 곳이다. 지나

간 문화이긴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커 영화간판학교를 기획하게 됐다”며 “참여한 시민들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판을 기획해 두달 여여 걸쳐 간판을 완성하게 된다. 중장년층에는 추억을, 청년층에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또한 영화간판 학교를 통해 시민들과 공동작업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간판을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라고 생각한다는 그는 많은 이들과의 소통으로 주변 환경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북구 자미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김희련 작가와 함께 하는 2인전 '있다' 전도 최근의 결과물 중 하나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소통과 소통의 결과물에 대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한다. 박씨는 “영화 간판은 광주극장이 있는 한 다양한 내용과 형식, 실험을 통해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며 “이와 함께 개인적 작업으로도 많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김혜진기자 hj@srb.co.kr

# 양림동서 '퍼포먼스 아트' 감상

## 문유미 'The First Supper' 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퍼포먼스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2006년부터 아시아 및 유럽의 여러 축제와 전시회 참가하며 행위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문유미 작가가 8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개인전 'The First Supper'를 갖는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인 이번 전시는 발표 작품 중 대표작을 퍼포먼스 아트 전시 형태로 선보인다.

주요작품인 'The First Supper'는 자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죽어가는 모든 존재를 애도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처음 시작

했던 원형의 모습대로 다시 연결하는 내용으로, 사진과 비디오, 설치를 행위예술 퍼포먼스 형식과 결합해 선보인다.

또 이번 전시를 통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퍼포먼스 작품의 기록물을 전시해 퍼포먼스 작품의 보존 및 소장자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던지고, 작가와 큐레이터, 콜렉터, 미술관과의 관계와 제도적인 보완 등 행위예술계의 담론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작가는 공연예술기획을 전공하고 퍼포먼스와 아트 분야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 인간의 소의 등 본질적인 질문을 기반으로 경외감이 드는 자연의 요소들을 오브제로 삼아 시·노래·비디오·설치·움직임·의상 등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며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조태일 시인 20주기 곡성서 문학축전 오는 7일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

제1회 조태일 문학상 시상식 및 죽형 조태일 20주기 문학축전이 오는 7일 오후3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열린다.

'제1회 조태일문학상'은 장흥 출신 시집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을 펴낸 이대흠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천만원을 수여한다. 죽형 시인의 20주기를 맞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숨결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대선, 김숙희, 박관서, 석연경, 주명숙 시인의 시낭송을 비롯해 곡성 어린이들은 조태일 시인의 시 '임진강가에서'를 낭송한다.

염무웅 평론가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정신'이란 주제로 독재 권력에 저항하면서도 개성적인 목소리가 확고한 시를 썼던 조태일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들려준다.

이밖에 조태일 시인의 대표시를 비롯해 박남준, 손세실리아, 이오우, 정원도 시인 등 시인들의 추모시에서 서양화가 한희원의 작품을 시화로 선보이는 배너시화전 '그리는 쪽으로 고개를', 전년도간찰 대안사 문학가행, 세미나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시문학' 등 행사도 진행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